

새만금 SOC예산 원상회복 총력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국회 방문 새만금·주요 국가예산 사업 증액 반영 건의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 SOC예산 등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 증액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김 부시장은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군산시 국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던 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산업용 자율주행 스키이트 플랫폼 구축사업, △슈퍼퍼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등 R&D예산 축소의 여파로 삭감된 시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을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계획에 따라 그간 정상 추진되던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필요 장비 구축이 불가해지는 등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짐으로 인해 예산 삭감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는 새만금 SOC 예산과 주요 사업 예산들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미정 부시장은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전북도·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기업 인재등용문 역할 '톡톡'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원스톱 채용 서비스 '큰 호응'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지역 기업들을 위한 인재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17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익산지역 대표 업체인 하림산업, 삼양식품, 예순건설 등 직접 참여 5개사를 포함한 15개 업체가 50여명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했다.

직무성향진단, 전문직검사, 취업성공을 돕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 컨설팅과 컬러를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 등 다양한 구직자 맞춤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시청 입주기업인 '파머러운지'에서 창업상담을 진행해 깊이있는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으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며 참여 기업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지역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찾아주는 취업등용문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에 1,2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채용연계를 진행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 통

2023 익산 동물보호 문화축제 성료

익산시는 지난 14일~15일까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익산 FC국제 도그쇼 및 2023 익산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익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만여명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해 사랑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4일 오전 개막식에는 최중오 익산시의장을 비롯해 김수홍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동물보호호복을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이틀간 진행된 도그쇼에서는 동물스타들의 아름다움 매력과 개를 한껏 발산하며 가장 멋있고 우아하며 안정된 자세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 보건소,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간담회

군산시보건소는 17일 군산의료원 등 표본감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표본감시단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등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의 발생 수준과 발생 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의료원 등 7개소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를 위해 관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담당자들에게 표본감시 신고율 향상을 당부하고 각종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진단위로금 보장항목확대

군산시, 낙상·끼임·추락·화상 등 일상생활 중 상해 발생 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지급

군산시가 군산시민에게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10월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증을 갱신한다.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됐으며,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의 발생 시 장애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4개항목 △스콜존·살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물 피해상해, △가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시는 거기에 더해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월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쿨버시(Culver) 대표단이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익산을 방문한다.

미국 쿨버시 대표단,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익산 방문

익산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쿨버시(Culver) 대표단이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익산을 방문한다.

Albert Vera 쿨버시장, Fredy Fuza 시의원, Lisa Saperston 자매도시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된 쿨버시 대표단은 익산시청, 익산시의회, 익산역 등 주요 기관과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등 명소를 답사하며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양도시 간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는 익산시와 쿨버시가 교류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길을 와주신 쿨버시 대표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상호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쿨버시 방문은 지난 6월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익산시 대표단의 쿨버시 방문에 이은 답방으로 앞으로 두 도시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익산시와 쿨버시는 지난 1983년 9월 21일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년,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홈스테이는 2000년부터 매년 상호도시를 방문해 총 16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올해 8월에도 익산시 학생 5명이 쿨버시에서 진행된 홈스테이에 참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3 보석대축제' 29일까지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2023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가 18일부터 29일까지 주얼펠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주얼펠리스협의회(회장 김대길)가 주관하고 전라북도도와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보석대축제는 주얼펠리스 55개 업체의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30% 특별할인행사

(24K, 다이아몬드 제외)가 진행돼 보석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얼리 우수자품 특별전시, 개인소유의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리세팅, 체험 코너 운영, 보석 가공 시연, 보석산업 사진 기록전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빛어낸 주얼리작품 사진 전시, 행운의 탄생석 특별전



시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는 연인, 친구, 가족 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